



부경고가 1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5일째 32강전에서 강호 충암고를 5-2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경기 후 부경고 선수들이 기쁜 표정으로 그라운드로 뛰쳐나오고 있다.
 목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권동현 막고·서정원 때리고...부경고 16강 세이프

(3회 초 등판 6.2이닝 무실점) (지명타자 출전 빼기 2타점)

부경고와 강원고가 황금사자기 16강에 안착했다. 부경고는 15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7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동아일보사·스포츠통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동주최) 5일째 충암고와 32강전에서 5-2로 승리했다.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을 허용치 않은 마운드의 높이가 돋보였다. 부경고는 2회초 무사 1루서 김상범에게 1타점 2루타를 맞고 선취점을 빼앗겼다. 그러나 2회말 공격에서 1사 후 3연속안타에 희생플라이, 김준형의 1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3점을 뽑아내며 경기를 뒤집었다. 부경고의 위기는 3-1로 앞선 3회초에도 계속됐다. 3회초에도 불넷과 안타, 희생번트로 1사 2·3루 위기에 몰리

자 '에이스' 권동현을 투입했다. 권동현은 희생플라이로 승계주자 한 명에게 홈을 허락했지만, 추가실점 없이 급한 불을 껐다. 1점차 근소한 리드를 벌려놓은 이는 5번 지명타자로 출정한 해결사 서정원이었다. 5회말 무사 2·3루 찬스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주자 2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스코어 5-2로 사실상 승부에 빼기를 박은 순간이었다. 권동현은 6.2이닝 3안타 4삼진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충암고는 9회초 2사 후 불넷과 상대 실책, 몸에 맞는 공을 묶어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3번타자 이현호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충암고는 아탑고, 경남고, 경북고, 부산고 등 이번 대회에서 전통의 명문고를 집

충암고와 32강전서 5-2 짜릿한 승리 강원고, 우신고에 7-0 7회 콜드게임

어삼킨 이번의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이어진 다음 경기에선 강원고가 우新高를 7-0, 7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하고 16강에 안착했다. 경기 중반까지 팽팽한 투수전 양상이었는데 5회말 균형이 깨졌다. 강원고는 1사 1·2루 찬스서 3번타자 김준현이 이종욱의 2타점 3루타로 2점을 먼저 뽑았다. 불넷으로 찬스를 이어갔고, 이창현의 좌중간 2루타로 4-0까지 스코어를 벌렸다. 7회말에도 안타와 몸에 맞는 공 2개씩을 묶어 점수를 뽑았고, 이예준의 우중간 2루타로 콜드게임을 완성했다. 강원고 투수 신동화는 7이닝 3안타 4삼진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첫 완봉승의 영예다.
 ▶ 관련기사 2면
 목동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스포츠동아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대구에 0-6 역대 최악 참패...축구명가 서울의 추락, 왜?

'5無' 서울, 플랜 없는 내일이 더 멘붕!

- 1 기성용·이청용 영입 불발 '투자 실종'
- 2 저비용 고효율만 강조...비전도 전무
- 3 선수단 불협화음 최용수 리더십 구멍
- 4 23년만에 최다골차 패배 조직력 와해
- 5 최근 3연패 9위...허울뿐인 공격축구



'전통의 명가' FC서울이 역대 최악의 참패로 무너졌다. 서울은 14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6으로 대패했다. 최근 3연패와 함께 2승4패(승점6)가 된 서울은 9위로 추락했다. 서울은 불명예스러운 각종 기록도 썼다. 6골차 패배는 구단 창단 이후 최다 점수차 패배 타이다. 럭키금성 시절인 1987년 포항제철에, 안양LG 시절인 1997년 부천SK에 각각 1-7로 무릎을 꿇었던 서울은 23년 만에 쓰라린 아픔을 반복했다. 특히

2013년 K리그 승강제 도입 이후 1부 구단 최다 실점이다. 서울은 2015년 4월 라이벌 수원 삼성에 1-5로 패한 바 있지만 6실점은 처음이다. 또 K리그 1 사상 최초로 2개 자책골(박주영·정현철)을 기록했다. 승강제 이전인 2007년 서울-포항전에서 포항이 2차례 자책골로 자멸했다. 스코어 4-0이 됐을 때만 해도 유쾌하고 느긋하게 경기를 관전하던 대구 관계자들조차 5·6골 차로 간극이 벌어지자 미소를 지웠다. 서울의 처참한 패배는 그만큼 상대에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요즘 서울은 되는 일이 없다. 겨울이적시장에서 K리그 유턴을 타진하던 기성용(마요르카)·이청용(울산 현대)을 모두 놓친 것이 그 출발이다. 형편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쉽지만 선수 측은 친정의 심드렁하고 무성의한 협상 태도에 훨씬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적인 망신을 산 '리얼 돌(인형 성인용 품)사태'는 서울이 자랑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김성재 코치의 갑작스런 이탈과 김진규 신임 코치 선임 과정은 거듭된 패배와 맞물려 코칭스태프의 불협화음이라는 소문으로 확대됐다. 최용수 감독의 굳건한 리더십이 흔들리라는 예

기도 들린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구단의 방향이다. 서울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비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우승은 아니다. '저비용-고효율'만을 고집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던 현재 서울의 전력은 정상권과는 거리가 있다. 이적료를 들인 보강은 측면 자원이자 김진아가 사실상 유일할 정도로 투자에 인색해졌다. 선수들도 구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서울은 유난히 연봉 협상이 까다로운 팀으로 정평이 났다. 에이전트 업계에서는 선수가 구단이 이미 정해놓은 상한선 이상 액수를 제시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고개를 젓는다. 그러면서 국내와 외국인 선수의 연봉 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선도하는 명문구단이라는 투철한 책임감으로 감동의 축구, 화끈하고 볼거리 많은 공격축구를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일이 없는, 당장에 급급한 지금의 서울을 보면 이는 허울뿐인 공약(空約)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K리그의 '명가' FC서울이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이은 실책에 부진한 성적까지 겹쳐 구실이 끊이지 않고, 구단 안팎의 분위기 또한 뒤숭숭하다. 특히 뚜렷한 방향이 없는 모습에 축구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14일 대구FC와 원정경기 도중 그라운드를 응시하는 서울 최용수 감독의 표정이 어둡다. 이날 서울은 0-6 대패로 각종 불명예 기록을 쏟아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KMGM 홀덤 이벤트룸 ROAD SHOP 런칭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 ▶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 업종변경가능

창업상담 : 1644-7861